

조선 새 수도 서울 건설에 앞장선 ‘박자청’ (朴子靑 1357~1423)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서울은 이제 세계적 도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서울은 조선 시대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쏟기도 한다. 성곽과 성문들이 복원되는가하면, 궁궐도 여러 다듬어졌다. 그리고 그 때마다 조선왕조가 세워진 직후 이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박자청을 떠올리게 된다.

최고위직 군인으로서 왕실의 온갖 건축 일 도맡아

박자청은 고려말 무신으로 조선초에는 공조판서 등의 고위관직에까지 올랐고, 새 수도 서울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술자다. 그는 국보 224호로 지정되어 있고, 1만원권 뒷면을 장식했던 경복궁의 경회루를 지금 모양으로 지은 사람이다. 또 한양대 옆의 옛 다리인 살곶이다리(전곶교=箭串橋)는 조선초에 만든 가장 긴 다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박자청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청계천을 정비한 다음, 서울의 종로 일대와 남대문로 일대에 행랑을 짓고, 상설상가를 조성하여 오늘의 서울 시가지 모양을 만든 것도 그의 공으로 여겨진다. 그는 또 당대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지었고, 왕실의 온갖 건축 일을 도맡아 시행했던 인물이다.

원래 박자청은 고려말 위화도 회군을 지지했고 이성계의 새 왕조 개창을 지지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던 무신 황희석의 밑에서 성장한 무인이었다. 황희석은 이성계를 도와 정몽주 일파와의 대결에서 이성계를 승리로 이끌어준 주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박자청은 그의 후견자인 황희석의 도움으로 고려말의 왕궁에서 내시(內侍)로 출발하여, 낭장(郎將)의 벼슬까지 올랐다. 이성계가 새 왕조를 세우자 박자청은 중랑장(中郎將)으로 승진했다.

1393(태조 2)년의 사건은 그의 출세의 계기가 된 중요한 일화로

전해진다. 때마침 궁궐 문을 지키는 입직 당번 군사였던 박자청은 임금의 아우(의안대군)가 왕명도 없이 궁에 들어가려 하자 얻어맞으면서까지 이를 제지한 일이 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태조 이성계의 눈에 들고 신임을 받게 되었고, 곧 호군(護軍)으로 승진해 어전(御前) 밖에서 숙위(宿衛)하는 소임을 맡았다는 것이다. 낭장, 중랑장, 호군으로 승진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으로 치면 장군의 직위까지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호군이란 고려 시대 장군을 부른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태조실록을 보면 박자청은 1397(태조 6)년 왕명에 따라 고위 관리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러 갔는데, 당시 그의 직함이 ‘대장군’으로 나온다.

그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이미 최고위직 군인이 되어 있었다. 태종 때는 줄곧 도총제(都總制)를 맡았던 것으로 당시 실록에는 적혀 있다. 고려말 공양왕 3년(1391) 5군 편제를 고쳐 삼군도총제부를 만들고, 실권을 잡은 이성계가 도총제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들어와 그 이름을 도총제로 바꾸고, 좌군, 우군, 중군에 각각 ‘도총제’를 두었다. 박자청은 1407년 중군 도총제를 맡았던 기록을 시작으로 태종대에서 세종대에 걸쳐 좌, 우, 중군 도총제를 두루 역임했다. 당대의 최고사령관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경회루 연못 물 새자 검은 흙으로 메워 수리

박자청은 그런 군사적 지위를 가진 채 나라의 온갖 건설을 도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기는 당시의 국토 건설 사업은 궁궐을 짓거나 산능 작업을 하거나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 군사지도자가 당연히 건설책임자로 적임이었을 것이다.

경회루를 지금처럼 짓게 된 것은 1411(태종 11)년 8월 임금이 그

에게 경복궁을 수리하도록 명함으로써 시작된 일이다. 태종은 공조 판서 박자청에게 경복궁은 원래 아버지 임금이 만든 것으로 자신이 거기 살아야만 후손이 살게 될 것이라며 수리할 것을 명했고, 특히 북루 아래에 연못을 파라고 지시했다고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연못이 바로 경회루의 연못이다. 그리고 이듬해(1412) 4월 2일 자 태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새로 큰 누각을 경복궁 서쪽 모퉁이에 지었다. 공조 판서 박자청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는데, 제도가 굉장하고 창활하였다. 또 못을 파서 사방으로 돌렸다. 궁궐의 서북쪽에 본래 작은 누각이 있었는데, 태조가 창건한 것이었다. 임금이 협착하다고 하여 명하여 고쳐 지은 것이다…

그리고 9일 뒤인 4월 11일에 임금은 경복궁에 거동하여 누각과 못을 보고 술자리를 베풀어 공사를 감독한 박자청 등을 위로했다고 전한다. 경회루에서 열린 이 파티에는 종친과 부마들이 참여하였다고 하니 왕실 내부의 잔치였던 모양이다. 이 경회루 연못은 곧 말썽이 나기도 했다. 물이 새어 물을 연못에 채울 수 없었던 때문이다. 7월 19일 기록을 보면 이 문제는 박자청이 해결했다. 물을 다 뺀 다음 물새는 곳으로 의심되는 곳은 모두 검은 흙으로 때운 다음 물을 채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듬해 1413(태종 13)년 1월에는 박자청이 군대 1천 명을 동원하여 1만5천근짜리의 쇠종을 운반하여 돈화문에 달았다.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을 가리키는데, 그 종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리 크지 않지만 역사상 중요한 종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또 그는 1415년 11월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명 나라가 조선에 동인도를 보내준 것을 감사한 대목도 보인다. ‘동인도’란 침과 뜸의 자리를 보여주는 청동으로 만든 인형을 가리키는데, 한의학의 기초가 된다. 그의 중국 여행에 대해서는 그 이상 내용은 알 수가 없다. 1408년 왕명에 의해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에 소나무 등을 심은 그는 1411년에는 남산과 태평관 북쪽에도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 같은 1411년에는 창덕궁에 누각을 짓고 침실을 만들었으며, 진선문 밖에는 돌다리를 놓기도 했다

이처럼 특히 태종 일대를 통해 왕의 각별한 대우를 받자 그를 비난하는 의논도 분분했다. 1411(태종 11)년 10월 4일 사간원의 상소문을 보면 공조판서 박자청은 원래 재덕이 없는 사람이지만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국가의 건설 사업을 모두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인물을 발탁하여 공사를 맡기고,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공사는 벌리지 않아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덜어주

어야 한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태종은 “박자청이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다만 부지런하고 끈기만 하다. 종묘·사직을 수리하는 일은 내가 모두 명하여 역사를 동독(董督)한 것이다”라면서 그를 두둔하고 있다. 또 그해 겨울에는 그의 술주정이 말썽이 되었지만, 태종은 그는 원래 술주정 하는 사람이라며 역시 그를 현직에 그대로 두었다. 또 1412년 5월에는 하급 관리를 구타했다하여 역시 말썽이 났지만, 문제없이 넘어간 일도 있다.

천수만과 가로림만 잇는 태안운하 계획하기도

1413(태종 13)년 8월 좌정승 하륜의 태안운하 건설 제안은 흥미롭다.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당시 전국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쌀은 배로 운반하여 서울로 가져갔다. 해마다 조운선의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태종 3(1403)년에는 34척이 침몰하여 쌀 1만석 이상을 잃고, 죽은 사람이 1천 명이 넘는 사고도 있었다. 박자청이 한참 건설 관계를 담당하는 고급관리로 성장할 때였다. 그런데 이 뱃길에서 가장 험난한 코스는 바로 태안반도 서쪽 끝 안흥 앞 바다였다. 그러나 안면도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남쪽에는 천수만, 북쪽에는 가로림만이 겨우 7km 떨어져 있을 뿐이다. 여기를 운하로 연결하려는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지금 서산시와 태안군의 경계를 따른 이 운하는 제대로 된 운하가 아니라,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에 몇 개의 호수를 파서 쌀을 실었다 풀었다 하는 과정을 6차례 거듭하는 방식이었다. 이듬해까지 이 계단식 운하는 시험 운영되었지만, 그대로는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다. 정말로 두 만 사이를 물길로 이어주는 정식 운하를 파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1413년 가을에는 왕명을 받고 여러 신하들이 현장에 다녀왔는데, 박자청이 현지 답사를 하고 그림을 그려 보고했고, 임금도 가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 운하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말았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태종 말엽에 한성부 판사가 되었던 그는 세종의 즉위와 함께 의정부 참찬이 되기도 했다. 세종 2년 9월 왕실의 장례를 위해 마전 나루에 배다리를 놓았는데, 마치 평지처럼 편하게 강을 건너게 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대가 심했던 다리를 박자청의 건의로 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세종 2년(1423)년 11월 사망했다. 세종은 3일간 정사를 폐하고, 종이 100권을 내렸으며, 시호를 익위라고 하였다. 그는 본관이 영해이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박질이다. ㉓